

대형증권사 '1兆클럽', 중소형은 '실적부진'... 양극화 심화

미래에셋·삼성·키움·한투증권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익 예상치 1兆
해외주식 수수료 실적도 쏠림현상
중소형사, 부동산 PF 부실 지속
일부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지난해 국내 증시 부진에도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수익에 힘입어 '1조클럽'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인투자자 이탈 등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실적 부진과 신용등급 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내 명암이 엇갈렸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한국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등 4곳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시장예상치(컨센서스) 1조원을 넘겼다. 국내 증권사 다수가 같은 해에 영업이익 1조원을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최초다. 2022년에는 메리츠증권 1곳이 유일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미지.

고, 2023년에는 전무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는 부진했지만, 코로나19 당시 증가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증권사들이 호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2023년 말 680억달러(100조416억원)에서 지난해 말 1121억달러(164조9215억원)까지 불

어났다. 이는 약 65% 급증한 수치다.

다만 해외주식 수수료로 인한 실적 호조도 대형사로 쏠리고 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8.9% 증가, 비중투사는 27.6% 감소하며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개별사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미래에셋·삼성·키움·한투·NH투자증

권 등)의 영업익 시장예상치 총합은 5조 6077억원으로 직전 해보다 66.2%(2조 234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SK증권과 다올투자증권, iM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역성장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전매승 LS증권 연구원은 "중소형사는 부동산 PF 잔여 부실 처리 등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업권 내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밸류업 정책 역시 일부 대형사에 국한된 이슈"라고 짚었다.

지난해 국내 3대(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신용평가사들은 일부 증권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나신평은 SK증권, 하나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등급 전망을 일제히 내렸다. SK증권의 장기 신용등급은 'A'에서 'A-'로, 단기 신용등급은 'A2+'에서 'A2'로 내렸으며, 하나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의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한기평도 SK증권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K증권은 누적 영업손실 764억원, 누적 순손실 525억원을 기록했다. 다올투자증권도 누적 영업손실 300억원, 순손실 171억원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다만 하나증권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95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49% 급증했고, 순이익 측면에서 흑자전환했다. 하나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10위권 안에 속하는 증권사인 만큼 회복력을 갖췄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자본 여력이 낮은 증권사일수록 재무안정성 저하 위험에 노출돼 있고, 2020년 이후 등급이 상향 조정된 증권사 중 당시 수준의 수익창출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증권사도 신용도 하향압력에 노출돼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거래 증가 효과와 수도권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 신규 딜 증가의 효과가 중투사에 집중된 반면 비중투사는 부동산 PF 시장 위축으로 수수료수익이 감소하면서 수익창출력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권사, MTS·AI 서비스 투자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개발비, 전년비 12.3% ↑... 3379억
전산운영비도 12% 늘어난 7046억
디지털 환경 익숙한 젊은 고객층 유입

증권사들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차원에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증권사들의 개발비 지출은 전년 대비 12.3% 늘어난 3379억원을 기록했다. MTS 등 신규 전산시스템 개발에 투입된 비용인 개발비는 2021년 1719억원, 2022년 2421억원, 2023년 3275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스마트폰으로 투자 업무를 보고 있는 이미지.

다. 전산시스템 운영, 고객 정보보호,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산운영비 역시 7046억원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고객층을

유입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기술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증권사로 살펴보면 KB증권이 개발비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154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규모다. 전산개발비는 13% 늘어난 519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개발비로 468억원을 지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전산운영비로 770억원을 지출, 11%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개발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대비 6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산운영비는 681억원으로 12% 늘어났다. 하나증권은 개발비로 413억

원, 전산운영비로 229억 원을 투자하며 각각 전년 대비 42%, 18% 증가했다.

올해도 사용자 편의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들은 MTS를 새롭게 개편,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배당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배당 마스터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의 배당금 정보와 추천 배당주, ETF, 리츠 등 상품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NH투자증권은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QV MTS에 다양한 투자 정보를 추가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와 협력, 해외 기업 실적 분석 자료인 '어닝 폴노트', 서학개미와 큰손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주요 기업을 다루는 '핵심쏙쏙', 특정 산업 섹터를 소개하는 'Hot 이슈' 등 전문 콘텐츠를 도입하며 투자 정보를 다각화했다.

대신증권은 자사 MTS인 '대신 사이보스'와 '대신 크레온'을 개편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메뉴를 트레이딩, 상품, 연금, बैं킹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사용 빈도에 따라 하위 메뉴를 재배치했으며, 고객이 계좌 현황과 투자 성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정보' 화면도 새로 추가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투자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이라며 "MTS 고도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증권업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지난해 개인 국내채권 42兆 순매수... 기준금리 하락 영향

금투협 '장외채권시장 동향'
外人, 74.9兆 매수... 전년비 17兆 ↓

지난해 기준금리 하락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 순매수 규모가 4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 기타 금융채 등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2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준금리 하락 기조속에서 안정적인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선호가 지속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국채 금리가

전 구간에서 연초 대비 하락 마감했다. 금투협은 "연말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소식 등으로 금리가 내렸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국채 47조 6000억원, 통안채 16조 5000억원 등 총 74조 9000억원어치의 국내 채권을 순매수했다. 전년 대비 17조원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268조 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5조 2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장외 채권 거래량은 전년보다 474조 7000억원 늘어난 4959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2조 4000억원 늘어난 20조 3000억원이 거래됐다.

한편 지난해 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5조 8000억원 감소한 870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순발행은 111조 3000억원 증가해 잔액은 282조 6000억원에 달했다. 국채는 전년 대비 9000억원 감소한 222조 7000억원이 발행됐고, 통안증권은 41조 8000억원 줄어든 87조 7000억원이 발행됐다.

반면 금융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의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7조 5000억원 증가한 321조 1000억원이 발행됐다. 회사채는 투자 수요 회복으로 31조 7000억원 증가한 121조원이 발행됐다. 특히 회사채 발행 시장의 경우 기준 금리 인하 국면에서 활기를 띠며 수요 예측 금액이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한 44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요 예측 참여액은 227조원으로 참여율은 513.7%를 기록했다. /원관희 기자

iM증권, 자본 효율성 통해 지속가능성 추구

2025년 경영전략회의 진행

iM증권은 지난 9일 2025년 경영전략회의를 iM증권 본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2025년 경영계획을 전사에 공유하고 지속가능 성장 회복과 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성무용 사장을 비롯한 전 사업본부의 임원 및 단장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iM증권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약경영 추진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의 정상화, 리테일 부문 흑자 전환, 트레이딩 운용 방식 개선, 대출 중개·주선 사업 확대 등의 세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iM증권은 PF 재구조화, 정상



지난 9일 iM증권 본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성무용 iM증권 사장을 비롯한 전 사업본부 임원 등이 모여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전략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iM증권

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상각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등 기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3분기 기준 약 2400억원대의 총당금을 적립하고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율을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54%로 낮췄다. /신하은 기자